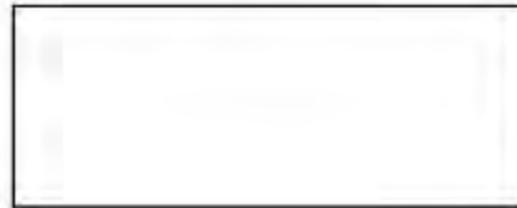


# 제33회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 1차 심사자료

2021



**KOSID**  
|사|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본 표지는 심사용으로 사용됩니다. 본 표지면에는 출품자의 성명 및 신원에 관한 어떤 사항도 절대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換環 환, 환

친근한 공원형 화장시설로 전환하고 순환하다.



## BACKGROUND

### “증가하는 화장률과 노후된 화장시설의 문제”



현재 국내 화장장 시설은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공간들은 사람들의 요구와 삶의 변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며 발전해옴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공간들은 여전히 협소하고 노후된 공간이 많았다.

### “부산광역시의 화장 현황”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과 연도별 통계를 확인하였을때 부산광역시의 화장률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화장로의 갯수는 1998년에 머물러있다.

### “부산광역시의 필요 화장로 산출”

■ 1일 평균 부산 사망자 수 58명 X 부산 화장률 92% = 53건

■ 1일 화장로 공급수요 : 영락공원 15기 X 4회(1기당 가동횟수) X 80%(가동률) = 48건

부산의 1일 화장건수 53건 / 1일 48건의 수요로 인해 총 5건 / 1.25기의 화장로 부족  
 지속적인 연 화장률의 증가와 영락공원의 집중 현상을 대비하여 5기의 화장로 계획설정

**SITE**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산 56-6)

대지면적 : 약 14000㎡ (4235평)

용도지역 : 농림지역

대지용도 : 농업

건 폐 율 : 20% 이하

## PURPOSE

부산의 부족한 화장로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심적, 육체적으로 지친 유가족들이 공간으로부터 위로와 배려, 감정의 환기의 목적의 필요성을 가짐

CONCEPT

# MOBIUS

[삶의 순환, 동선의 순환, 감정의 순환]

인간의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화장장 공간의 순환 동선으로 풀어보고자 하였다. 순환동선의 설계를 통해 화장장의 밀폐된 공간이 아닌 내부와 외부의 순환을 통한 산책의 개념으로써 유가족들은 감정의 순환(환기)를 경험 할 것이다.



DESIGN PROCESS

# FOUR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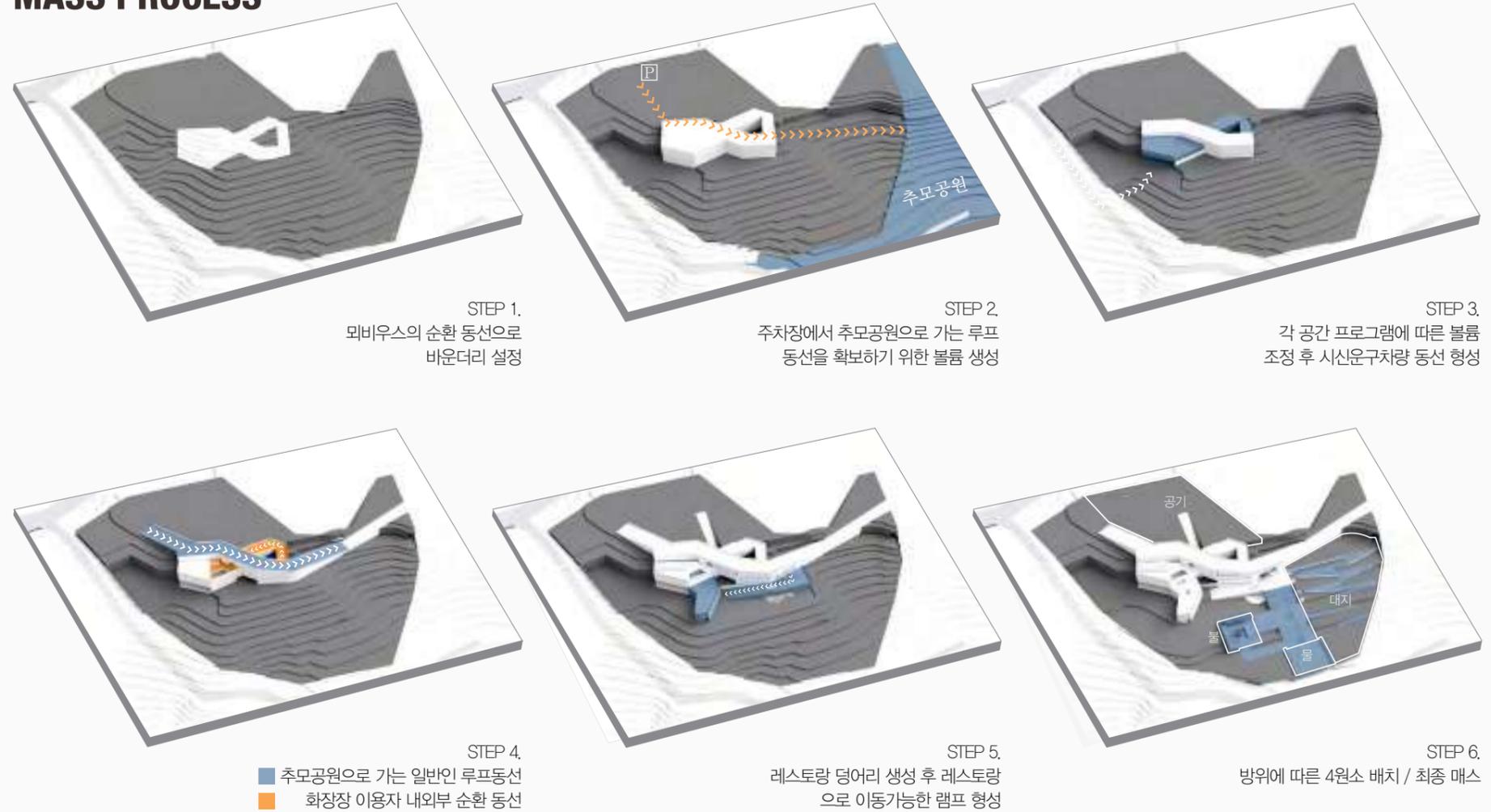
[4원소 : 물, 불, 대지, 공기]

엠펜도클레스의 4원소는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며 이 4원소들은 끊임없이 반복 순환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죽어 매장된다면 대지로 돌아가고 화장되면 불이 되고 수장되면 물로 돌아간다. 나무에 걸어드는 풍장을 한다면 죽은 몸은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이처럼 모든 죽은 이의 영혼은 4원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다시 생명이 되어 곁에 돌아온다.

“ 4원소를 삶과 죽음에 빚대어 공간에 대입시켜 각각의 위치에서의 상징성을 가질 것이다 ”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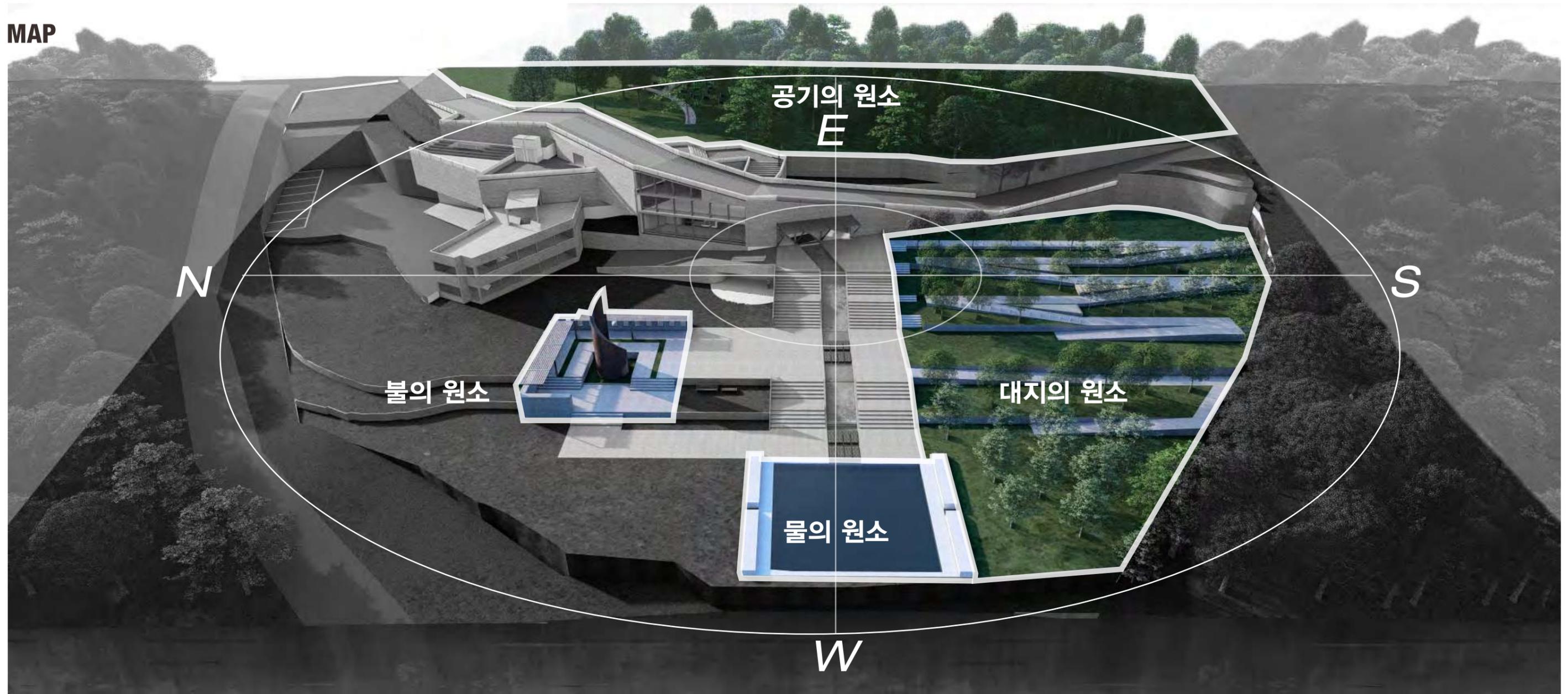


DESIGN PROCESS

“4원소가 가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와 매스의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에 배치”

4원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방위	프로세스
물	고인에 대한 기억 / 추억	서	수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고인과의 추억을 그리며 명상으로써 그들의 심신을 안정
불	영원과 환생	북	불의 상승의 이미지에서의 영원과 꽃의 개화에서의 환생의 이미지를 파빌리온에 적용
대지	자연으로 돌아감 / 생명	남	수목장의 배치와 가볍게 거닐 수 있는 산책로의 배치로 고인과의 만남이라는 무거운 감정을 완화
공기	희망	동	수목장림의 배치로써 숲과 자연에서의 얻는 생명력을 통해 무거운 감정을 완화

MAP



**물**

- 수공간 (320㎡)
- 명상 / 애도의 메세지
- 심신의 안정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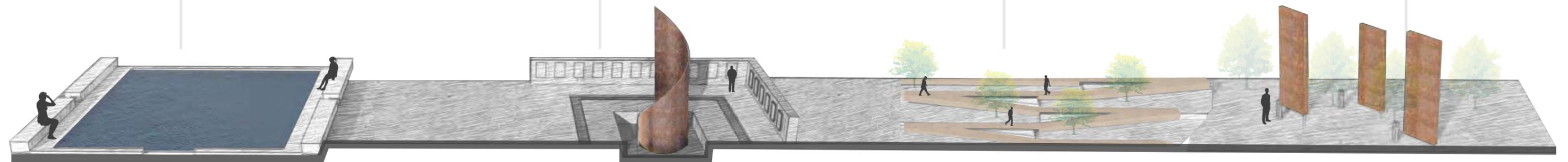
- 고인과의 추억 영상 시청
- 파빌리온 디자인 (Height: 5200mm)
- 불의 상승 - 영원
- 꽃의 개화 - 환생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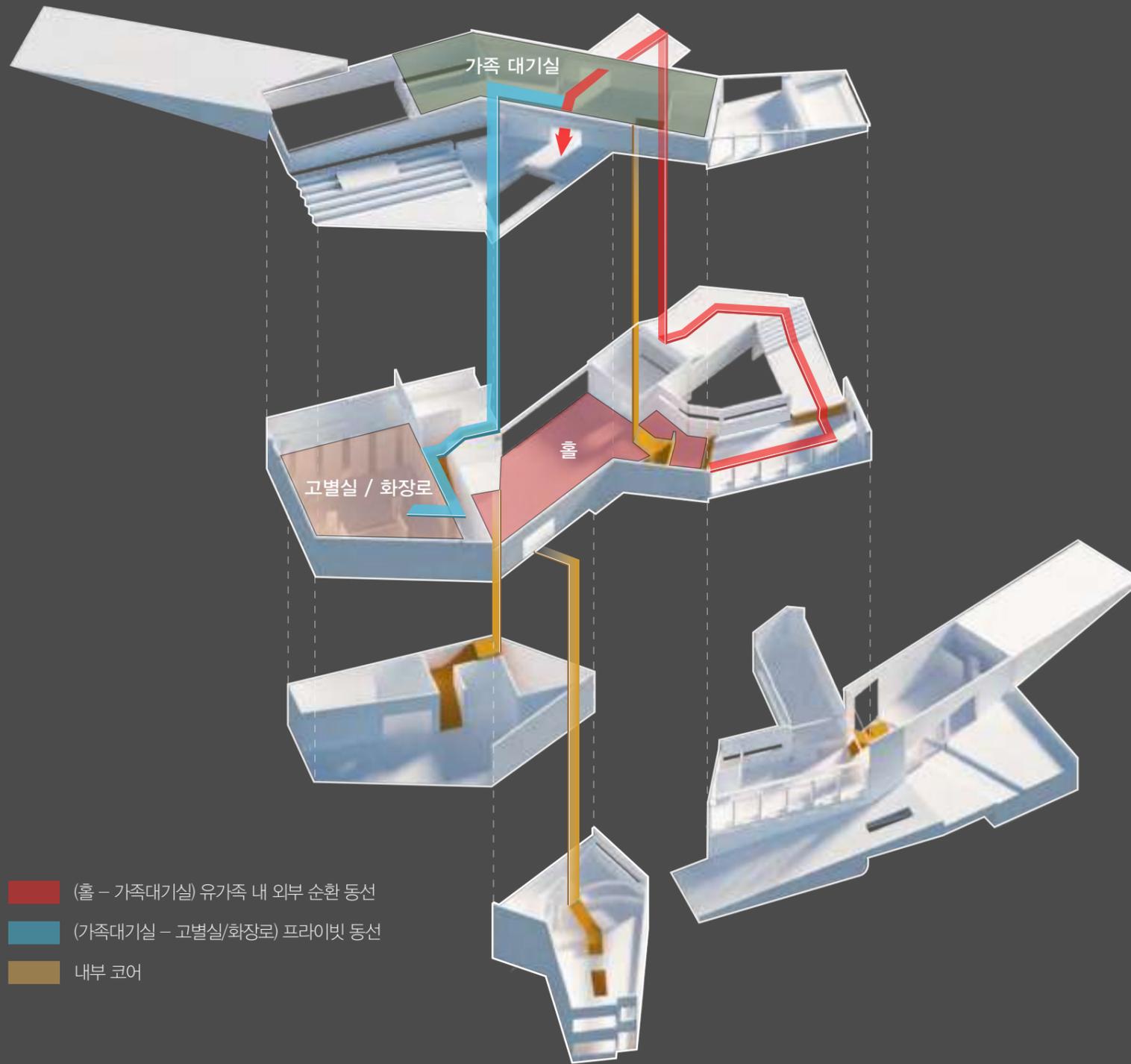
- 수목장 (1830㎡)
- 가족 / 개인 수목장
- 산책로 (Total length: 250m / Width: 2200mm)

**공기**

- 수목장림 (3000㎡)
- 코르텐강 파빌리온 (size = 1600mmx4000mm)
- 시간의 흔적을 장소에  
심어 삶의 일부분으로 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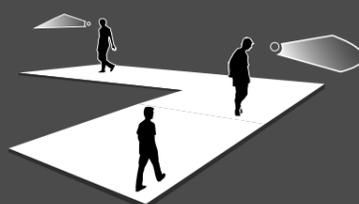


## ACTIVITY RO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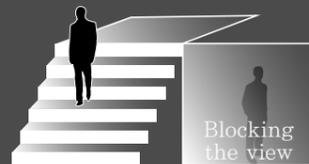
- (홀 - 가족대기실) 유가족 내 외부 순환 동선
- (가족대기실 - 고별실/화장로) 프라이빗 동선
- 내부 코어

## ACTIVITY PROGRAM



### 의도적 건축적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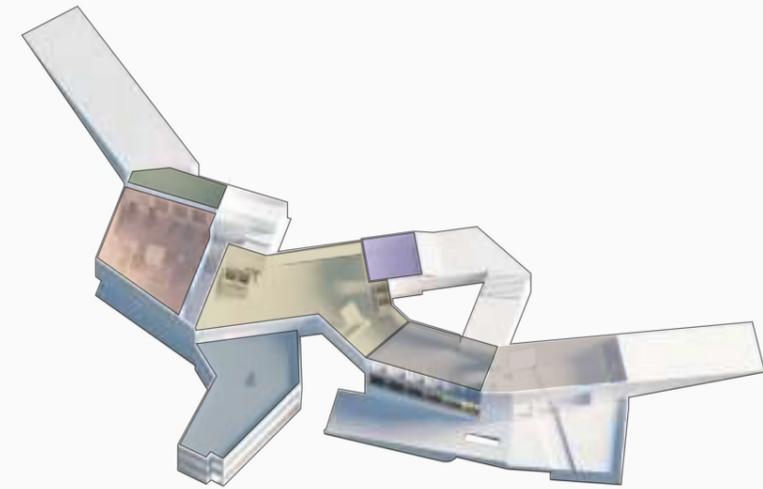
의도적 내 외부 순환 산책 동선을 통해 밀폐된 화장장에서 벗어나 유가족들은 사이트 내의 다양한 시점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감정은 순환/환기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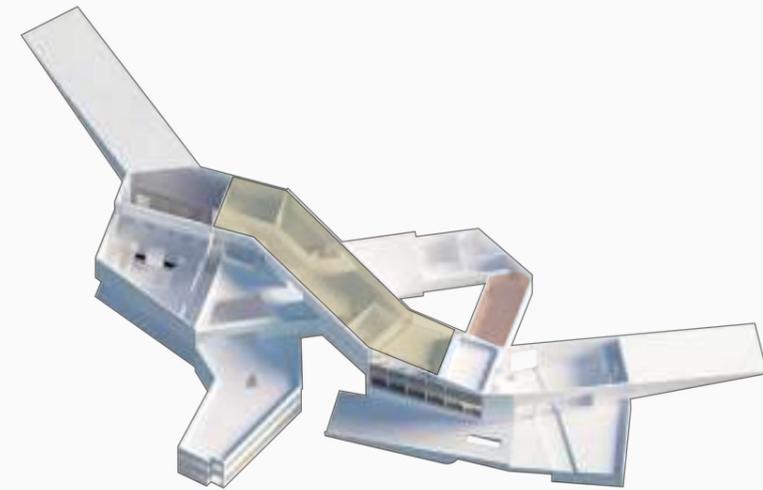
### 프라이빗 동선 설정

고별실과 화장로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 공간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별실과 화장로의 동선은 가족대기실에서만 이동 가능 하도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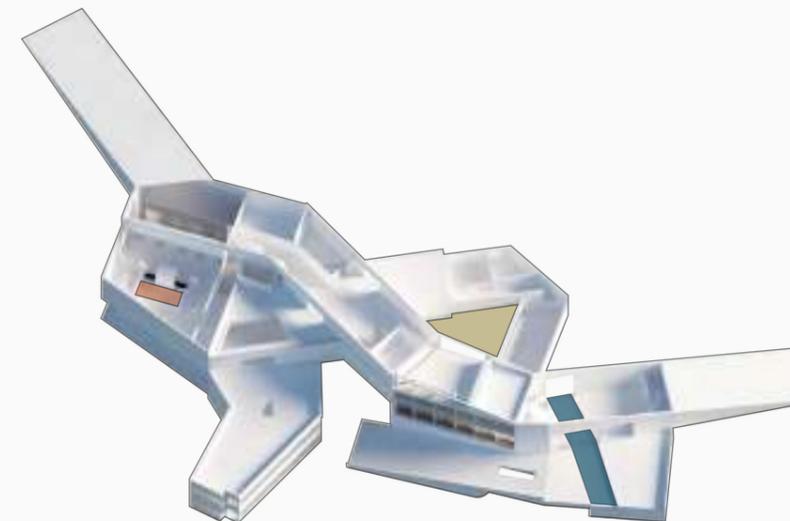
## ZONING



- 화장로 / 고별실 (220㎡)
- 기계실 (190㎡)
- 홀 / 수목장림 진입부 (250㎡)
- 직원 사무실 / 휴게실 (130㎡)
- 옥상 루프 진입구간 (116㎡)
- 카페(190㎡)
- 레스토랑 (200㎡)



- 유가족 대기실 (360㎡)
- 수공간 뷰 카페 (70㎡)



### 고별실 수공간

목상공간에서 고인에 대한 상실감에 젖은 유가족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유화시킴에 반사된 빛을 통해 안정적 인 심리 확보

### 중정 수공간

내부와 옥상산책 동선에서 수공간을 바라볼 수 있으며 공간의 심미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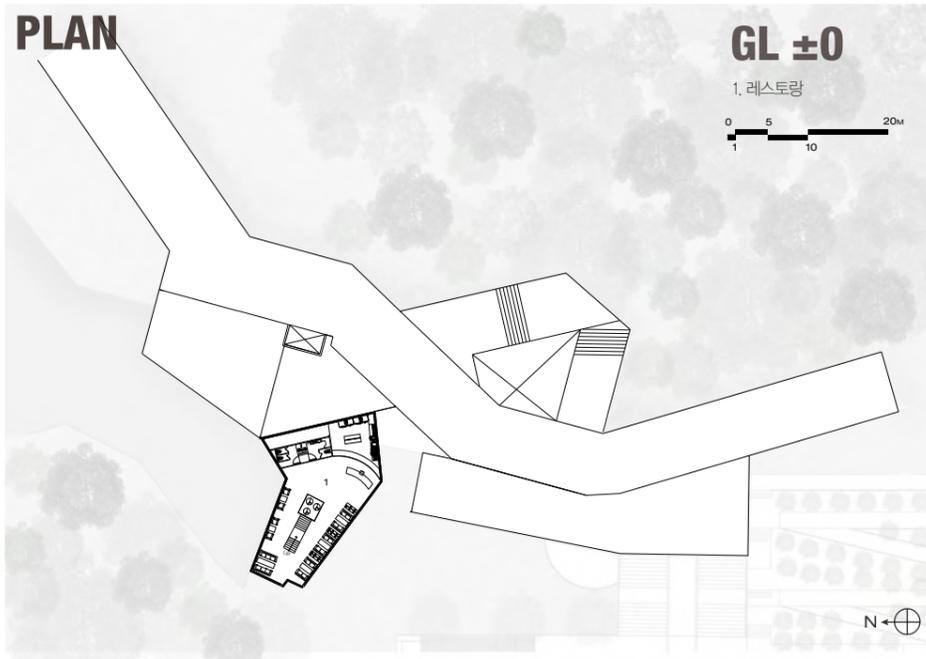
### 카페 수공간

내부에서 외부로 자연스러운 동선의 방향성을 잡아주며 흐르는 물의 소리는 유가족들의 심리적 작용을 유도

PLAN

GL ±0

1.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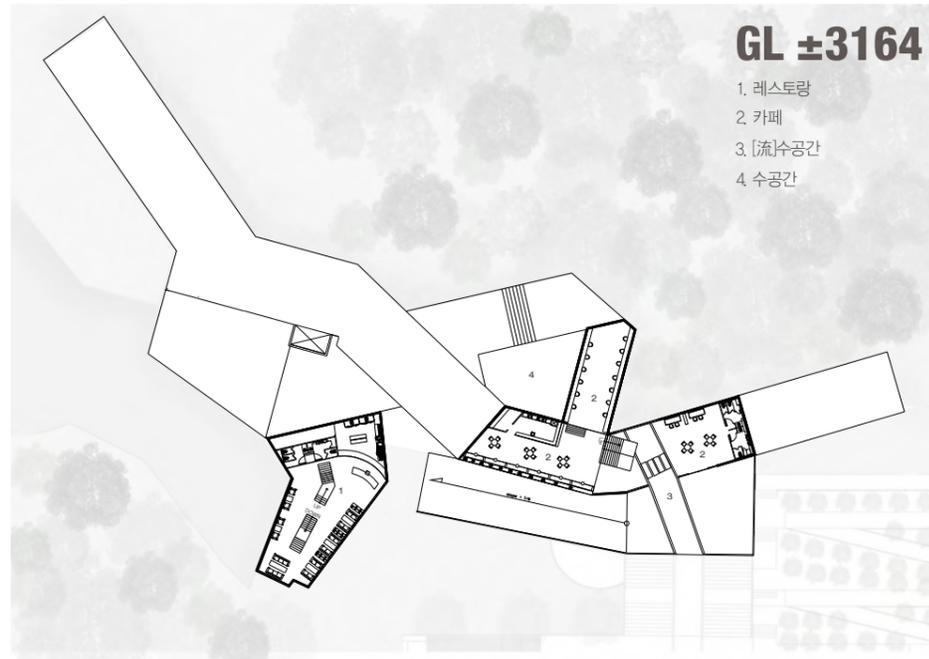
GL ±1300

1. 운구차량 진입 구간  
2. 영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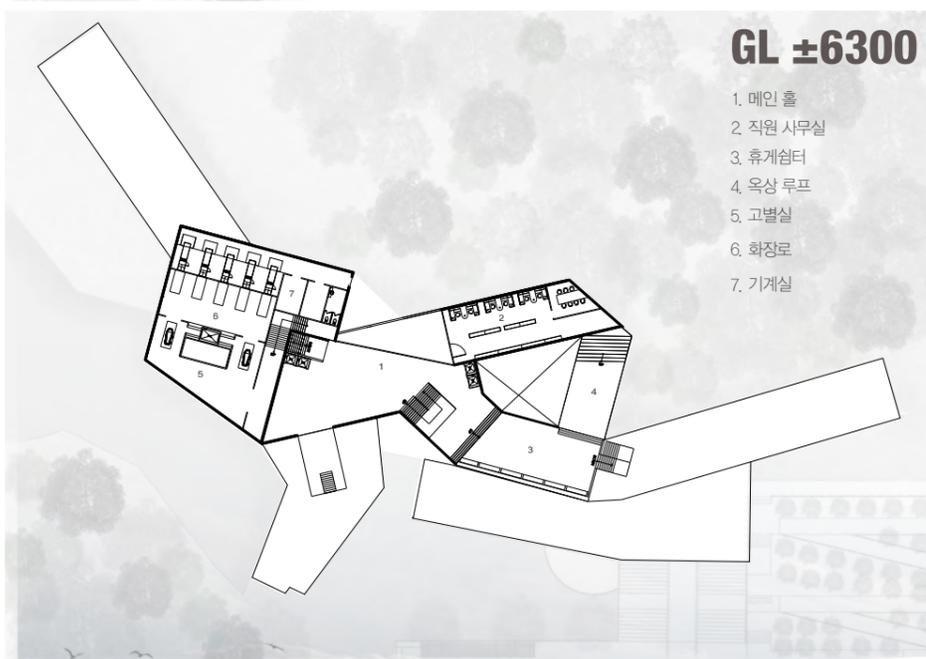
GL ±3164

1. 레스토랑  
2. 카페  
3. [流]수공간  
4. 수공간



GL ±6300

1. 메인 홀  
2. 직원 사무실  
3. 휴게센터  
4. 옥상 루프  
5. 고별실  
6. 화장로  
7.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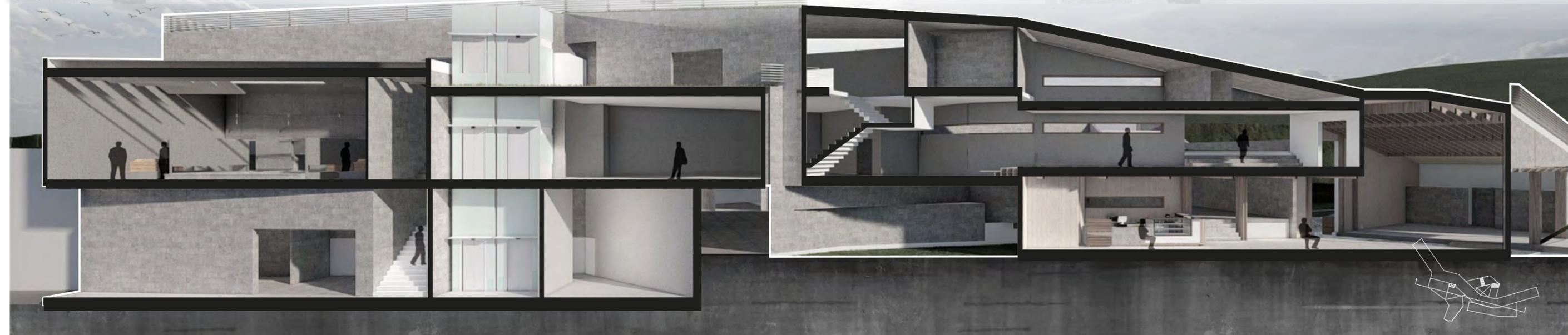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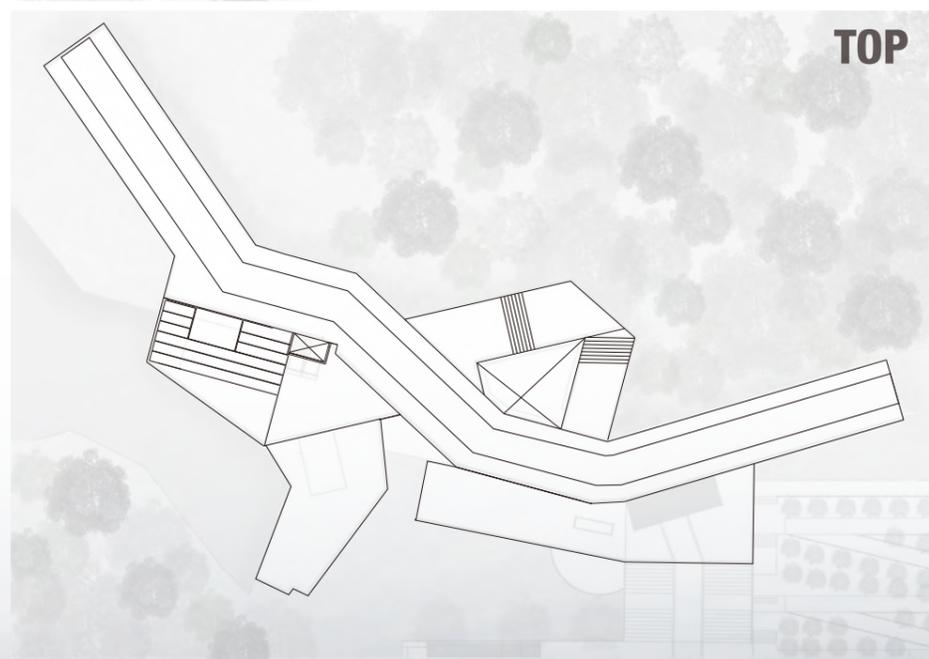


GL ±10428

1. 가족 대기실  
2. 루프탑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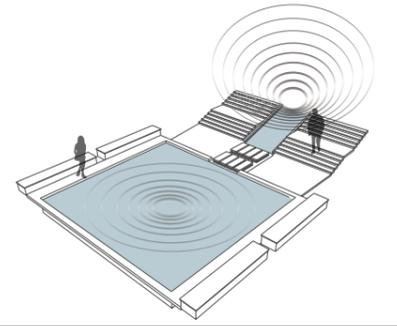


#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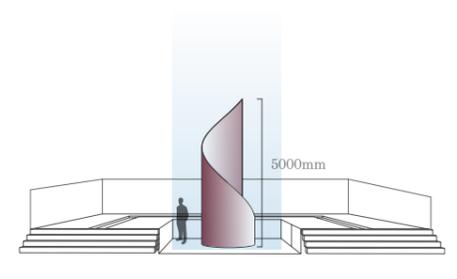
## A 물의 원소 - 수공간

외부 계단의 동선과 함께 흐르는 수공간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특수한 경험을 유도 하며 정적인 수공간은 공간의 기반을 잡아주며 고요함과 평온함을 자아내 고인과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회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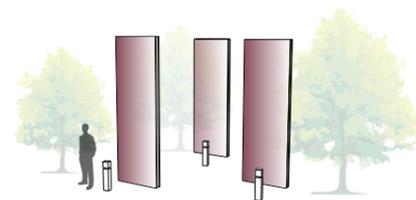
## B 불의 원소 - 영상시청

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는 영원과 환생으로 불의 상승의 이미지를 영원, 꽃의 개화를 환생의 이미지를 대입시켜 파빌리온 디자인을 구상하여 유가족들은 고인과의 추억을 사진,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회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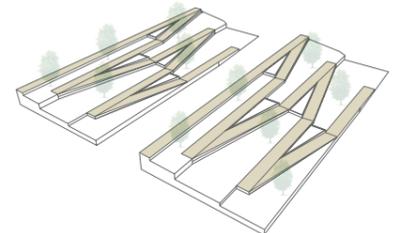
## D 공기의 원소 - 수목장림

고인과 함께 했던 추억 / 시간을 코르텐스틸 상징물에 적용시켜 숲 속에 식재된 나무처럼 코르텐스틸의 시간의 기억을 장소에 심어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삼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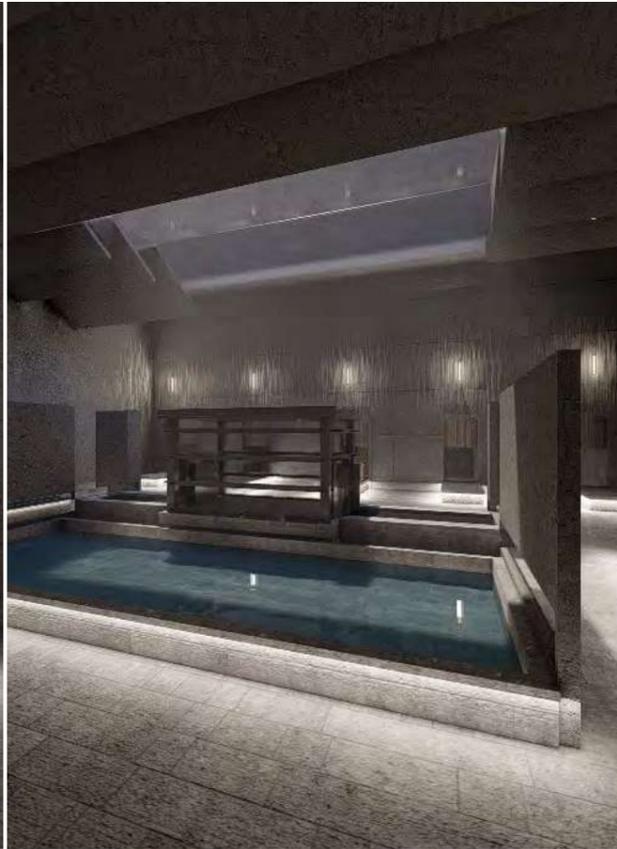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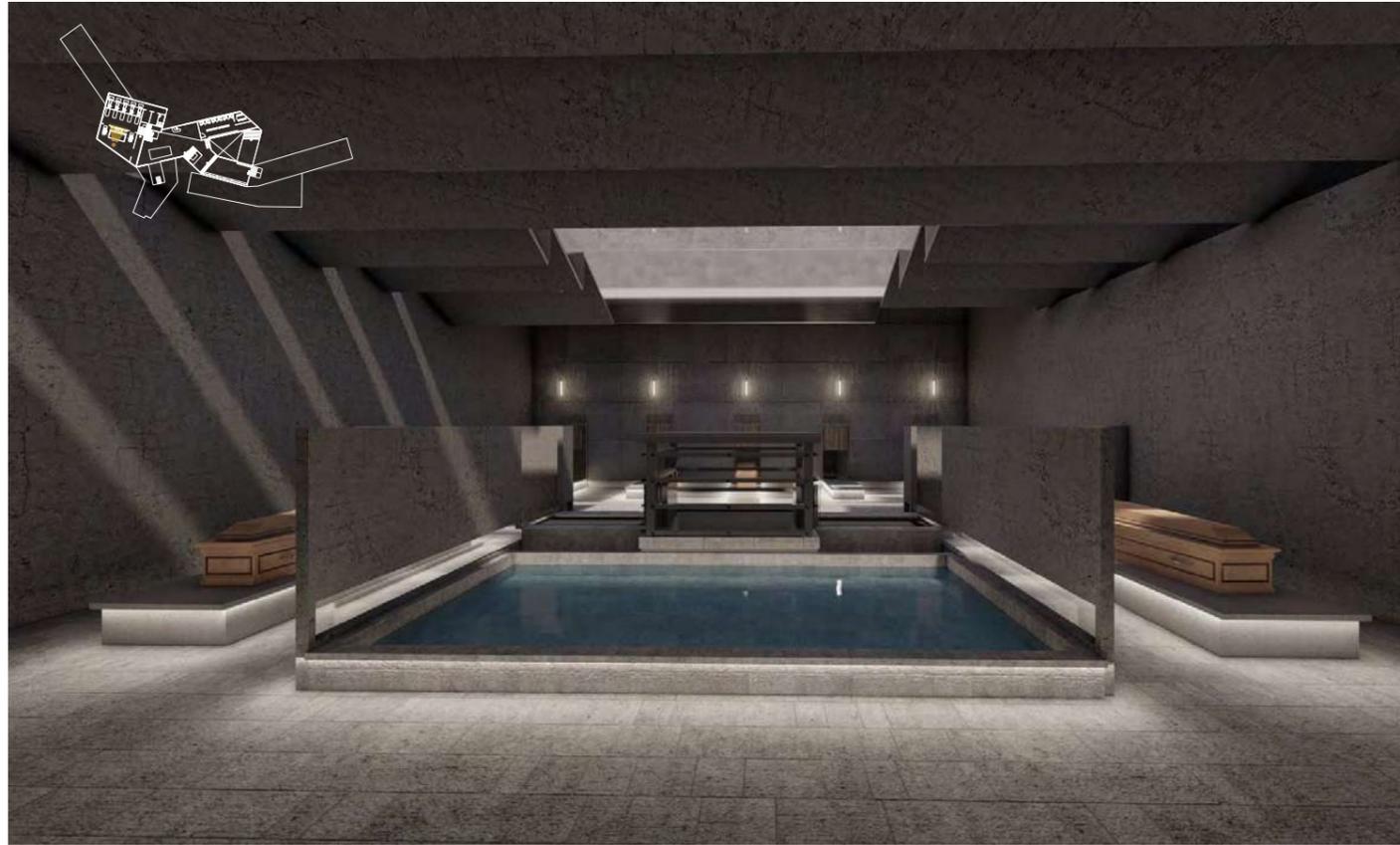


## C 대지의 원소 - 수목장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에 따라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무인 소나무와 상록수를 영생목으로 사용하며 개인과 가족 수목장을 분리하여 산책로를 통해 고인을 만날때에 무거운 마음 감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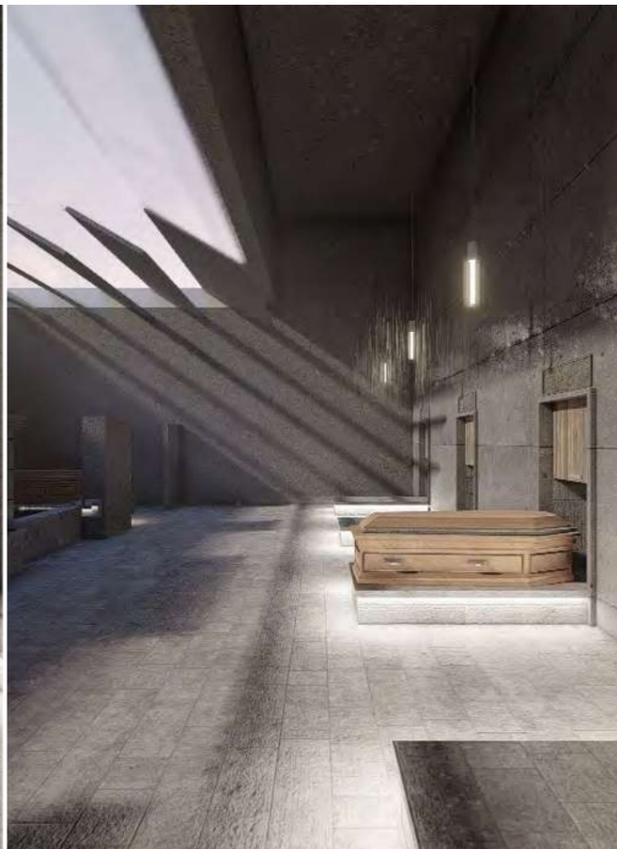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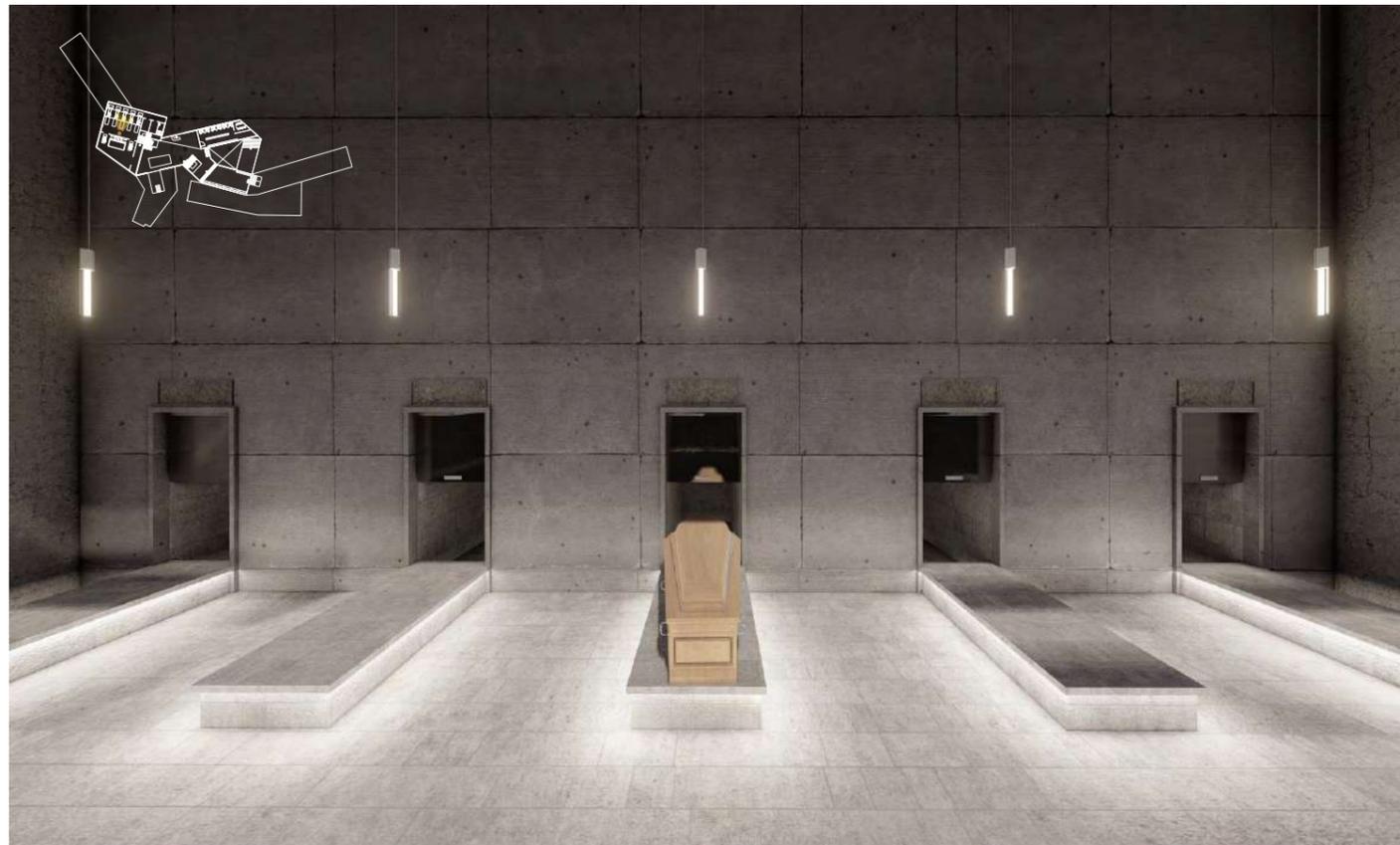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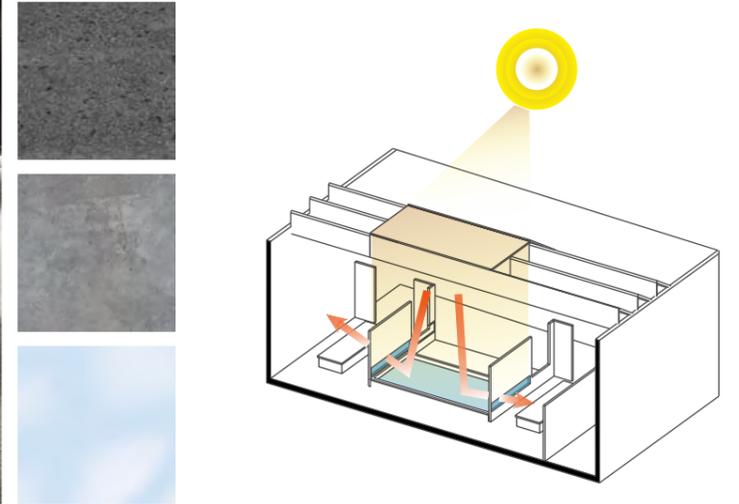


#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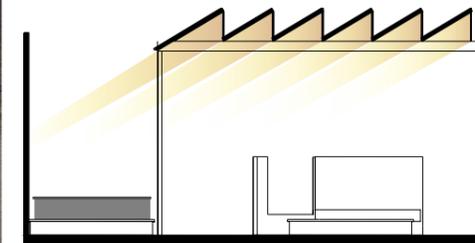
## 고별실 [CH:5000mm]

고별실의 밀폐된 장소에서 벗어나 빛과 물의 요소를 끌어들이어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한다. 벽면 아래에 위치한 유리를 통해 물에 반사된 빛의 잔상은 유기자들의 불안한 감정을 완화 시켜줄 장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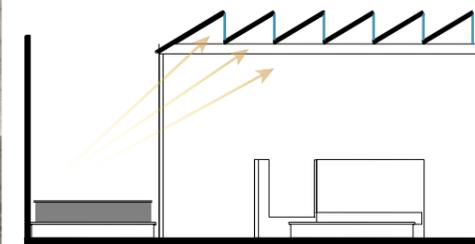


## 화장로 [CH:7100mm]

천장의 경사진 유리창 구조를 적용하여 직광을 사선으로 만나는 벽체에 걸러줌으로써 햇빛을 분산시켜 온화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부로 유입시킨다.



화장로는 현세의 육체가 내세로 가는 마지막 공간으로서의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며 삶의 마감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마침표를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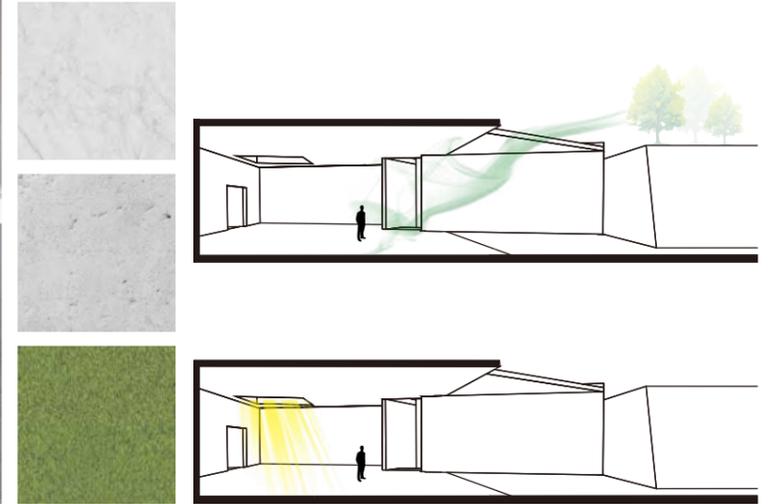
⊙ WEST

# PERSPECTIVE



## 홀/로비 [CH:4000mm]

내 외부 공간의 관입을 통한 경계의 모호함과 공간의 구획과 연결, 동선 채광의 기능적 측면과 함께 이를 통해 공간의 확장, 개방감, 시각적 통로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매개 공간으로써의 작용을 한다.



## 수목장림 진입로

홀/로비에서 이어진 수목장림 진입로로 수목장림에 사용된 코르텐강의 파빌리온 재질을 진입로 벽면에 사용하여 수목장림과의 연계성을 주며 숲이 가지는 생명력과 빛은 진입로로 하여금 자연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PERSPECTIVE

